동두천시 6·25전쟁 제57주년 기념식

6·25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원 등 600명 참석

동두천시재향군인회(회장 한종갑)는 25일 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정성호국회의원, 오세창시장, 형남선시의회의장, 6.25참전전우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제5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6.25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영화상영과 6.25전쟁 경과 및 교훈발표, 참전단체대표 감사패 증정, 기념사, 참전용사들에 대한 꽃다발 증정, 전쟁시 낭독, 6.25의 노래 만세삼창순으로 이어졌다.

한종갑 회장은 대회사에서 다시는 민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 일을 위해 안보를 강화하고 국력을 신장하여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내부적인 분열은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 있으니 내부적인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민의 단합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교육 복지의 일등도시 관광의 도시 가치가 한단계 상승하는 동두천을 만드는 일이 순국선열들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고 했다.

행사에 참석한 6.25참전 유공자들은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젊은 세대를 보면서 안보교육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세대들이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알게 하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시민 찾아가는 이동 시장 집무실 운영

동두천시 17건의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 제기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약1시간 여동안 생연주공아파트 주민과 함께 이동 집무실을 운영했다.

이날 집무실 운영에는 생연주공아파트 생연1동 11통(통장 권계중), 12통(통장 김영수) 통·반장을 비롯한 아파트 동별 대표자와 경로당 어르신, 인근 마을 6통지역 통·반장, 부녀회원, 주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이동 집무실을 시장실의 문을 쉽게 두드리기 어려웠던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오던 숙원사업과 불편사항을 격의 없이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었다.

이날 집무실 운영에서는 주한미군 아파트 거주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불꽃놀이 등 문제점을 미2사단측과 협의해 주한미군을 계도해 줄 것(이명섭 101동 대표 건의)과 생연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주차장 확보 등 그동안 시장실을 직접 찾아 건의하지 못했던 17건의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 및 불편사항이 제기 되었다.

오세창 시장은 환영해주신 아파트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공무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노력해 달라질 것을 약속하면서, 시민이 주인이라는 신념을 잃지 않고 열심히 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포토뉴스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대학생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학업에 대한 성취의욕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시작됐다. 임충빈 양주시장은 25일 대학생아르바이트 참여자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자기 자신의 개발을 통해 양주의 밝은 미래상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유총연맹 고교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가져

한국자유총연맹 양주시 지부에서는 25일 덕계고등학교 다목적실에서 고교생 450명을 대상으로 2007년도 고교생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한국자유총연맹 교육문화단 성악가 수 겸 안보강사로 활동하는 손경옥강사를 초빙 북한의 교육실상,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중요성과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가졌다.

양주회천 택지개발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7월 3일에

양주시는 양주 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작성한 환경. 교통. 재해. 인구 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 공람 및 설명회는 회정, 덕정, 덕계, 고암, 산북동 일원 4천417천㎡에 이르는 택지개발 지구에 대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로.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은 6월26일부터 7월16일까지이며 장소는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 양주1동사무소, 회천2동사무소, 회천3동사무소 등 4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설명회는 7월3일 10시에 회천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주민의견서 제출은 공람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7월23일)이내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 제출하면 된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회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회정동외 4개동 일원에 4천417천㎡에 2만3천910세대, 5만9천785인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도 하반기 개발계획 수립 완료 2008년 상반기 보상절차를 거쳐 2013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도시개발사업소(031-820-5990-92)번이나 대한주택공사(031-738-389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외국인 근로자 한국문화체험, 어울림 한마당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한마음가족봉사단 17가정

동두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소장 김경차)는 6월24일 한마음가족봉사단 17가정과 외국인근로자 20여명이 참여 한국문화체험 및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한국문화체험은 양주시 관내 대장금 테마파크 관람과 부채만들기 체험활동 시간을 가졌으며, 레크레이션을 통해 자연스런 만남과 친목을 다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한마음가족봉사단은 7월에는 독거노인가정에 밑반찬을 지원할 계획이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서지현 3기 회장은 봉사활동을 체험하면서 구석구석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시설들의 많음을 알게 되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틈틈이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면서 이러한 일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고 했다.

김현아 기자hona25490@hanmail.net

연천군청이 함께하는 즐거운 방과 후 학교

9억3천1백만원 예산 연천관내 21개교 1교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연천교육청(교육장: 앙기석)은 6월 26일 연천군 및 연천군 의회, 교육장, 교사,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2007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는 2007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사업계획 및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사업은 농산어촌 주민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억8천1백만원을 지원하고 연천군청(군수:김규배)이 3억5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9억3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연천관내 초, 중, 고등학교 21개교에서 1교 1특성화 프로그램, 초등 보육 프로그램, 교육청 특성화 프로그램, 평생교육, 방과 후 학교 환경여건 개선 등에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쓰이게 된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후 연말에는 권역별, 학교급별 발표회를 지역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커서 늠름한 군인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

양주 육군 28사단, 부대 인근 봉암초 학생 초청행사

육군 28사단은 6월 21일, 부대 인근 봉암초등학교 학생과 교사 70여명을 부대로 초청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가졌다.

봉암초등학교는 사단 사령부 바로 옆에 위치한 아담한 초등학교이다. 이번 행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교육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는 않지만, 항상 씩씩하게 생활하는 초등학생들을 격려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생들은 전차와 장갑차, 소총과 박격포 등 전투 장비를 견학하고 현대화된 병영생활관과 태풍전망대를 둘러보았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는 동안 연신 즐거워했으며, 부대 관계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였다. 또한, 민족 분단의 역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태풍전망대를 방문하여 순국선열들이 혼이 담긴 전적지를 돌아보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 아저씨들의 고마움을 느끼고,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5학년에 재학중인 김정수 학생(12세)은 "새롭고 신기한 체험을 해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던 하루였어요"라며 "나도 나중에 국민들을 지켜주는 씩씩한 군인 아저씨가 되고 싶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한우(비육우) 초음파 육질진단 서비스 제공

단계적인 육질등급 및 컨설팅으로 농가소득증대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이룡)는 FTA 등 개방에 따른 관내 한우(비육우) 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고가 초음파 육질진단 장비를 확보하여 현장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시범적으로 관내 비육우 5농가에 대해 초음파 육질진단 서비스를 실시 육질등급판독 및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며,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20개월 이상 된 비육우 및 출하를 앞둔 한·육우 사육농가에서 초음파 육질진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담 현장 육질진단용 차량을 구입하여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다.

육질진단서비스를 받을 농가는 판독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개체계류 및 개체정보를 전담 지도사에게 전제공하여 초음파 촬영후 2~3일안에 센터에 방문하면 촬영사진과 함께 등급판독 결과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초음파 육질진단서비스를 통해 개체관리에 중요성 및 육질등급판독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우(비육우) 초음파 육질진단 서비스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영축산담당 820-5618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목마와 책벌레'

2007 장흥아트파크에서

작가들에게는 작업 공간, 시민들에게는 문화체험 공간, 그리고 문화단체 및 기업에게는 문화 사업의 인프라를 제공을 모토로 설립된 복합문화 공간 장흥아트파크가 "2007 여름방학 특별기획전 목수김씨의 '목마와 책벌레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2007 장흥아트파크 여름방학 특별기획전'은 여름방학을 맞아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나무로 만들어낸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으로 초대한다.

아무렇게나 생긴 나무토막을 보며 호랑이와 메뚜기 그리고 책벌레를 떠올리게 된 목수 김씨. 그가 이리저리 깎아 하나 둘씩 형상을 만들어낸 나무-조각들을 선보이는 목수 김씨의 '목마와 책벌레 이야기' 전은 ▲책벌레와 책벌레 ▲치즈를훔쳐 먹은 쥐 ▲똑같다 ▲붙잡힌 외계인 ▲꽃을 꺾다▲짐을 실은 노새 등 총 65점의 ! 작품들이아트파크 어린이 체험 관에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전시된다.

어린이 체험 장 '목마와 책벌레 이야기'는 목수 김씨 김 진송이 만든 아이들을위한 나무-조각 놀이터로, 목마미끄럼틀, 시소의자, 책벌레 흔들의자, 기린 그네와그 속에 10개의 아기자기한 곤충과 동물들이 숨어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놀이 공간이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은 목수 김씨가 깎은 나무를 조립, 채색하고 인형을 완성하는"목수김씨 나무인형 만들기"와 번짐과 농담 등 수목화의 기틀을 배운 후 이를 이용하여 만드는 나만의 "수묵화 부채, 티셔츠 만들기"등이 실시된다. 이는 매주 토, 일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열린다. 이와 함께 두 번째 야외 어린이 체험 장인 B'bob 그물놀이터가 개장했으며, 미취학,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아트파크 관람, 체험과 함께 레스토랑 "빨간소"에서 여는 어린이 생일파티 프로그램과 엄마들의 미술관 나들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2007 장흥아트파크 여름방학 특별기획전과 관련 문의는 장흥아트파크 031-877-0500번이나 홈페이지 www.artpark.co.kr로 들어오셔서 문의하면 된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양주시 우편물 전산관리프로그램 자체개발 1석3조의 효과얻어

민원서비스 개선 및 년간 2,200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

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우편물전산관리프로그램 자체개발에 성공함으로써 그간 수작업 위주의 우편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게 되었다.

양주시 우편물전산관리프로그램의 주요장점으로는 전산화를 통한 업무량 축소로 업무시간단축, 환부불필요제도를 통한 예산절감, 우편물 도착여부 실시간 조회로 민원서비스 향상 등 1석 3조의 효과를 톡톡히 얻고 있다.

현행 등기우편물은 발송 후 수취인 미거주, 이사 감 등, 각종 사유로 반송 될 경우에는 반송료를 1통당 1,500원씩 납부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이러한 반송료를 절감하기 위해 우편물 발송시 봉투 좌측에 환부불필요라는 고무인을 찍어서 발송하고 있고, 환부불필요로 인해 돌아오지 않는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인터넷우체국(e-post)에서 개별 건으로 등기조회를 함으로써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양주시에서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은 모든 우편물 처리 전과정을 자동화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터넷우체국(e-post)과 연동하여 배달여부 자동저장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등기우편물 및 각종고지서 발송 후 도착여부 문의 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즉시 답변 할 수 있어 민원서비스 개선으로 행정기관 의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양주시 우편물관리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전산화에 따른 등기우편물 조회 및 업무량 단축으로 약 400시간의 업무시간을 줄일 수 있고, 프로그램 구입비 약1,200만원 환부불필요에 따른 예산절감액 1,000만원등 년간 2,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연천군, 하절기 노인무료급식 현장 점검

2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식사배달 4개소 대상으로

연천군 사회복지과는 '2007년 하절기 노인무료급식 현장'을 27일부터 29일까지 관내 식사배달 전담시설 4개소(연천, 전곡, 군남, 배학)를 대상으로 교육청(원무과)과 함께 합동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조사 내용으로는 노인복지사업안내 준수여부, 식중독 예방지침 수립 및 정기적인 위생교육 실시여부, 급식 위생·청결관리로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음식 사고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

연천군, 6월 중 수상구조대 운영

구조대원 3명 · 모터보트 1대 임무 맡아 사고 방지

연천군 재난안전관리과는 여름철 피서객의 급증으로 물놀이 장소에서 부주의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익사사고와 관련해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고 행락객의 자율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달 31일까지 동두천 소방서의 지원을 받아 임진강 북삼교 일원에서 수상구조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상구조대는 소방서 구조대원 3명과 모터보트 1대를 운영하여 수상?수중 인명 구조 및 응급환자 응급처치,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 기타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임무를 맡아 행락객의 익사사고 방지 및 안전계도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김현아 기자 hona25490@hanmail.net